

# 전여대협 당연직 대의원과 관련하여

보냄 : 8기 전여대협

받음 : 10기 한총련 중앙상임위

용도 : 전여대협의 조직현황과 발전전망에 대한 총화를 기반으로 하여 전여대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것에 대해

## 1. 지난 6차 중상결과 보고 내용

전여대협 4인 간부에 대한 당연직 대의원 배정 의사가 (전여대협으로부터) 총화 된 것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전여대협의 조직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한 총화가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이 2인 간부를 당연직으로 배정하자는 의견과 전여대협이 한총련 강화에 적극적으로 복무해 온 조직인 만큼 총화된 4인 간부 모두를 당연직으로 배정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장시간 토론 끝에 다음 중상에서 전여대협 의장님, 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중상 결과 보고내용 참조)

## 2. 중상의 결과를 듣고나서

1)기간 전여대협 운동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 많은 반성과 섬섬함을 느낍니다.

기간 전여대협 운동의 역사는 80년부터 시작된 건준위 6년, 건설 8년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총련 가입후 언제나 한총련과 함께 투쟁해온 조직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음에도 한총련 중상에서부터 이러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 기간 지회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반성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많은 섬섬함을 느끼게 됩니다.

2)5차 중상이후 6차 중상까지 중상의 노력이 부족하였음에 대한 비판합니다.

5차 중상에서 논의될시 전여대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중상에서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과 처음 제출되었으므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 중상에서 논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상이었던 6차 중상에서 다시 또 전여대협의 조직현황과 발전전망에 대한 총화가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결정되지 못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상에서 전여대협을 총화하고 그 인식을 높여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중상이라함은 개인의 판단만이 아닌 기층의 의견수렴과 총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한총련의 책임있는 상시적 의사결정기구라고 할때 그에 기반한 명확한 활동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5차 중상이후 6차 중상까지 중상의 노력이 부족함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3)간담회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합니다.

전여대협 당연직 대의원 배정문제는 한총련 중상에서 심의결정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기로 한 그 형식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없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하기로 한다면 미리 전여대협 중앙과 총화를 한다거나 사전에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한총련 중상에서 간담회를 요구한다면 전여대협은 무조건 따라서 응해야한다는 생각이 무의식중에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것에 비판합니다. 중상에서도 논의된 바와같이 전여대협의 조직현황과 발전전망에 대한 총화가 이유있다면 그리고 단순히 대의원숫자를 2명으로 할것인가 4명으로 할것인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게 간부들을 검증하고 면담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굳이 간담회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3. 전여대협 기간의 역사

- 87년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발족 이후 각 지역여대협 발족
- 88년 매춘 율리피 반대 투쟁, 주한미군 철수를 중심으로 에이즈 추방운동
- 89년 평양축전 제 7센터 참여 및 민족 통일 여학생단 조직, 활동,
-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 결성

- 90,91년 취업차별철폐투쟁, 지속적 지역 교류 사업,
- 92년 김보은, 김진관 석방 투쟁, 성폭력 특별법 제정 투쟁,
- 93년 윤금이씨 살해 미군 처벌 투쟁,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공동 발족
- 94년 양에리 학우 구명운동(양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해 아버지를 살해한 학우), 전여대협 2기 통일선봉대 활동,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에 가입

- 95년 1기 전여대협 의장 박경희 (경희대 총여학생회장), 제1기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건설, 전여대협 3기 통일선봉대 활동,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전여대협 일본 대사관 항의방문, 성폭력 상담 요원학교로 학내 성폭력 근절 운동 전개, 이북과의 첫 자주교류 시작,

- 96년 2기 전여대협 의장 김유경(경성대 총여학생회장),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 520수요집회 전국 집중 투쟁, 4기 전여대협 통일 선봉대 활동,

- 97년 3기 전여대협 의장 김정숙(동아대 총여학생회장),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근절 투쟁, 반여성정권 김영삼 정권 조기 타도 투쟁,

- 98년 4기 전여대협 의장 장윤영(경북대 총여학생회장), IMF반대 여성민중 생존권 쟁취투쟁, 300차 수요집회,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활동,

- 99년 5기 전여대협 의장 최선영(경기대 총여학생회장), 주한미군 철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 3차 연대 해결 투쟁, 3'198산미군기지 앞 항의시위, 전여대협 기지촌 활동,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활동

- 2000년 6기 전여대협 의장 유정숙(전남대 총여학생회장) 400차 수요집회, 전여대협 기지촌 활동,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활동, 지역별 릴레이 수요집회
-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참가, 2000년 민족통일대추전 여성통일한미당
- 성폭력 규제 학적 제개정 공동대책위 발족 활동

- 2001년 7기 전여대협 의장 조희진(동아대 총여학생회장)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활동, 2001년 민족통일대추전 여성통일한미당, 6.15 민족통일대토론회 전여대협 대표 참가, 8.15 평양 민족통일대추전 전여대협 대표 참가, 6.23 전민특위 국제 전범재판 전여대협 대표 참가,

이러한 전여대협 역사를 보더라도 알수 있듯이 전여대협은 자주민주통일여성해방을 이루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과정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96년 한총련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학생회자체 존립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었을때에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들은 어느 대의원과 마찬가지로 수배구속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 어려운 시기 총학생회 권한대행의 역할을 총여학생회장들이 집행하기도 하였고 총학생회 신거를 차르지못한 대학에서는 학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던 제 바로 총여학생회였습니다.

또한 한총련 운동대중화를 이루기위해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자 하는 여학우들을 모아내고 함께하면서 자주민주통일 투쟁에도 함께 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역사속에서 전여대협은 여학생운동의 전문영역과 함께 전체운동, 한총련 운동에 복무하고자 하였습니다.

## 4. 전여대협 현 조직현황

현재 전국의 약 60~70개정도의 총여학생회 건설, 그중 20~30개정도가 전여대협과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역여대협 건설상황은 15기 남여대협 건설, 부경여대협 건설준비중, 서울,대경,충청,경인! 내년정도에 건설고민중입니다.

## 5. 전여대협 발전 전망

### 1) 장기적 조직체계구축

3년간의 전망을 그려며 전여대협의 조직체계구축 고민을 합니다. 현재는 기층단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 전망속에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전여대협-지역여대협-총여학생회-단과대여학생회-과여학생회/부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망을 세우고 있습니다.

### 2) 전여대협 소모임 사업 대중화

대학단위 총여학생회에서는 소모임사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제라는 것이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기때문에 가장 적절한 소모임의 형태로 여학생운동대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기간 계속 되었던 소모임의 사업을 더욱더 대중화할것에 대한 요구가 있고 실제 거의 모든 총여학생회에서는 내용과 형식을 다양하게 하여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 3) 많은 여성주의 단체, 조직들과 연대연합 공고

전국적으로 많은 총여학생회가 있지만 전여대협과 함께하는 총여학생회는 약 반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함께하지 않더라도 사업과 투쟁의 맥을 가지고 더 많은 여성주의 학생조직들과 단체들과 함께할 전망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점으로 많은 여학생회조직들이 함께하였고 노동절투쟁, 통일토론회 등 올해 1년동안 제기되는 사업과 투쟁에 함께 할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 6. 한총련 증상에 요구하는 내용

### 1) 전여대협을 비롯한 부문계열조직의 체계와 질서를 최대한 보장하고 배려해주었으면 합니다.

부문계열조직은 말 그대로 한총련의 어느 지역총련이나 국위위원회와는 다른 체계의 조직입니다. 나름대로의 조직체계와 질서가 있으며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투쟁해나가는 조직입니다. 한총련이 운동대중화를 고민하면서 더 많은 학생운동조직들과 함께하고 넓혀나가기려고 한다면 부문계열조직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최대한 보장하고 배려해주었으면 합니다. 전여대협 또한 전여대협 의사결정기구인 전여대협 증상에서 간부들이 인준을 받았으며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 관련되서도 증상에서 4인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였으면 합니다.

### 2) 이것은 곧 한총련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부문계열조직을 보장하고 배려하는 문제는 단순히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 한총련 운동대중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한총련 운동대중화는 다양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아 더 많은 학우대중들과 함께 자주민주통일의 길에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학우들은 여학우들에 맞는 요구성을 가지고 또한 그 길에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운동대중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총련은 전여대협 간부의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 배경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2명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2명이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결코 동감할수 없습니다. 이 의견은 조직의 발전보다 조직의 담보와 후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조직이 그 전망을 세우고 발전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어야 합니다. 예전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래야한다는 것은 한총련의 운동대중화를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전여대협의 요구를 대의원숫자만 바라보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총련 증상담게 더 적극 권유해야한다고 봅니다.

### 3) 이후 전여대협을 비롯한 부문계열조직과의 간담회나 대화의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의 고민을 하다보니 한총련 증상과 전여대협간의 많은 대화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기회가 된다면 우리사회의 구조적모순에서 출발한 여성문제부터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방향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한총련 운동대중화를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 4) 이후 한총련 내에 부문계열조직과 일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조직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합니다.

기간에도 그러하였지만 한총련 내에 부문계열조직과 일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조직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여대협과 지역여대협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총련 조직생활에 함께 결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더 많은 고민속에서 올바른 대안을 도출하여 전여대협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계열조직과 일상적으로 소통할수 있는 조직체계가 마련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 전여대협 한마당을 함께하고 나서

소속대학 :

학번 :

이름 :

### \*영화를 보기전 배경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보스니아내전은 발칸반도의 복잡한 민족구성과 역사가 원인이 되어 탈냉전 이후 보스니아 회교정부, 크로아티아와 신유고연방의 지원을 받는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 사이에서 발발한 분쟁입니다. 유고연방이 해체되기 시작할 무렵인 1992년 보스니아는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고, 보스니아내 소수민족인 세르비아계도 보스니아에서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어 1992년 4월 EU가 보스니아 독립을 승인하자 이에 반발한 세르비아계와 유고연합군은 보스니아회교정부를 공격하였습니다. 탈냉전 이후 보스니아 내전은 유럽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등장하였고 이에 개입을 미루어 오던 UN이 군사개입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휴전과 재확전을 반복하던 보스니아 내전은 1995년 12월 미국의 주도하에 극적으로 분쟁 당사자와 신유고연방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전환을 맞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1992년 전쟁이 바로 보스니아 내전이며 영화 마지막에서 언급하는 3년후는 바로 전쟁이 끝난 95년입니다.

### ◎유령을 부르며(Calling the Ghost)를 보고나서

1. 이 영화가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의 위협에 대해..)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3. 전쟁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영화를 보면서 아쉬운 지점이 있었다면?
5.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 ◎대중매체 비평에 관한 강연을 듣고나서

1. 이런 내용의 강연을 들어보신적인 있으신가요?
2. 강연을 듣고나서 본인이 생각되는 대중매체에 대한 비평을 한가지 해본다면?
3. 강연을 듣고나서 아쉬운 지점이 있었다면?
4. 강연을 듣고나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전여대협은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와 결연으로 전국 총여학생회가 함께 하는 조직입니다. 전여대협은 학원과 사회내에 존재하는 여성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죠.

이번 전여대협 여학일군 한마당을 함께 하고나서 할말이 있다면 한마디!!